

# 종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 비트코인 가격 연일 '출렁'

연초부터 롤러코스터 시장 지속  
전문가들 긴축강도 의견 엇갈려  
3.5만弗 갈 것 vs 2만弗 이하 추락

미국이 최근 발표한 경제 지표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장기화 우려를 키우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롤러코스터장을 보여주고 있다.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비트코인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 당분간 가격변동이 지속될 이어질 전망이다.

1일 글로벌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2만5000달러를 돌파했지만 최근 2만30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8일 만에 약 8%가 하락한 것이다.

같은 기간 가상자산 시장 전체 시가총액 규모도 6.1% 줄어 1조600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 ◆ 미 경제지표에 비트코인 하락

비트코인 하락 영향은 미국 경제 지표 불안으로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움츠러든



미국 연방준비제도 건물

/AP·뉴스시스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1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7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 1월 PEC 물가지수 상승률은 5.4%로 지난해 12월 5.3%에서 오름세로 전환했다. PCE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6월 7%로 최고치를 찍은 후 계속둔화 중이었다.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이어 연준이 중시하는 PCE 물가마저 반등하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는 우려가

증폭된 것이다.

제품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게 오래 걸릴 수 있다"며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피벗(pivot·통화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 기대감을 지운 것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 ◆ 코인 전망, 상승 vs 하락 엇갈려

상승전망을 점치는 이들의 의견은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최고치 경신 ▲ 긴축 정점론 등이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직전 치인 39조5150억 해시레이트 수준을 넘어선 43조 해시를 넘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란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사용된 연산 처리 능력이다.

난이도가 높아지면 블록 생성이 어려워져 동일 해시레이트 대비 보상으로 받는 비트코인도 적어질 수밖에 없다. 즉, 비트코인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이야기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마이클 반 데 포페(Michal van de Poppe)는 "상승 추세의 시장에서는 조정이 상대적으로 짧게 이뤄져 한 번의 테스트를 거친 후 조정장에서 과도한 매도가 일어나면서 시장은 상승하기 시작한다"며 "비트코

인이 2만5000달러를 돌파하면 3만~3만5000달러를 향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하락 전망을 예상하는 이들의 의견은 ▲IMF 암호화폐 시장 압박 ▲ 긴축 강화론 등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법정화폐의 지위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IMF는 최근 몇 년간 수많은 암호화폐 자산·거래소가 무너진 만큼 현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비트맥스(BitMEX)'를 설립한 아서 헤이즈는 최근 크립토펀터(Crypto Bantler)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위험 자산과의 상관관계는 끊이지 않은 상태로 조만간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과 함께 급락하는 시기가 찾아올 것"이라며 "대규모 조정 시기에 비트코인이 2만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빛 못 갚는 중·저신용자 급증 인행, 1년새 연체액 3배 불어

가파른 금리인상에 상환능력 ↓  
신용대출 늘린 인터넷은행 악영향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기간에 인터넷은행의 대출이 늘어나 연체금액이 1년 전보다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카카오펀더·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급격하게 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 건전성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카카오펀더 25.4%, 케이뱅크 25.1%, 토스뱅크 40.37%로 집계됐다.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KCB기준 820점 이하)에 게 공급하는 대출로, 인터넷은행은 오는 2024년까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확대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지난해 인터넷은행이 목표로 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카카오펀더 25%, 케이뱅크 25%, 토스뱅크 42%로, 토스만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확대해 인터넷은행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며 "올해 2월 41.2%를 돌파해 목표치(44%)에 근접하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액별로 보면 카카오펀더의 지난해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은 2조5975억원으로 1년 전(1조7166억원)과 비교해 51% 증가했다. 케이뱅크는 같은 기간 7510억원에서 2조265억원으로 2배 이상 늘고, 토스뱅크는 126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23배 이상 급증했다.

문제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늘어난 만큼 단기 연체금액도 늘고 있다.

가파른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중·저신용자의 상환능력이 악화되면서 건전성 지표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터넷은행의 1개월 이상 연체 대출잔액은 2915억9100만원이다. 지난해 1분기 말(1062억원)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토스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증가한 만큼 1개월 이상 연체 대출잔액도 크게 증가했다. 토스뱅크의 1개월 이상 연체대출은 619억원으로 1분기(11억원) 말보다 56배 이상 늘었다. 케이뱅크는 920억원으로 같은 기간 2.5배, 카카오펀더는 1377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

연체율도 증가했다. 카카오펀더의 지난해 말 연체율은 0.49%로 1년전인 2021년 말(0.22%)과 비교해 0.12%포인트(p) 증가했다. 케이뱅크의 연체율도 3분기 기준 0.67%로 같은 기간 0.26%p 올랐고, 토스뱅크도 0.3% 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은 신용평가모델을 고도화해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카카오펀더는 현재 중위 구간에 집중된 금융이력부족 고객을 세분화해 중·저신용자를 선별하고 있다. 기존모형으로 거절된 중·저신용자 10명 중 1명은 우량한 중·저신용자로 추가 선별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사용하는 대안정보통신, 쇼핑 데이터 외에 전자책 등 도서구매 데이터, 운전이력 데이터 등을 추가한다.

토스뱅크는 토스를 통해 확대된 소비내역이나 금융생활 데이터 등을 확대해 신용평가모델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세상을 바꾸는 금융

요즘같은 때는  
KB증권에서  
Parking!

조금만 맡겨도 연 3.7% 수익금이 붙는다  
(4월 전, 2023.02.10 기준, 개인)

KB증권 발행어음형 CMA

파킹통장도  
KB증권이 좋은 이유!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초대형투자은행(B)만 가능하니까  
(투자평가 시점 및 미래에는 다를 수 있음)

AA+ 높은 신용도로  
믿을 수 있으니까  
(신용등급 AA+, 2022.5.29. 한국신용평가)

자동투자 서비스로  
알아서 투자해 주니까  
(별도 신청 필요)

투자자 독막! 개비증권

지금 바로 파킹하기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0496호(2023년 2월 16일~2024년 2월 15일)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치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 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 방법 등에 관하여 발행어음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발행어음은 만기 전 중도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 상환 수익률이 적용됩니다(중도 상환 수익 변경 시 홈페이지 참조). \*발행어음 수익률은 입금 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발행어음은 회사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발행 한도를 제한하므로 발행 한도 초과 시 신규 또는 추가 매수가 사전 예고 없이 중단될 수 있으며, 그 밖의 당사 사정에 의해 발행이 중단되어 매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CMA의 입금액은 발행어음에 투자됩니다. \*발행어음은 발행사 신용등급(AA+, 2022.03.29. 한국신용평가)의 신용위험(부도 또는 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 각+, 0, -순으로 구분). \*발행어음은 발행사 신용위험(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원금 및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